

# SK SMART CITY SearchLight

연구원. 신서정 / 3773-9978, seojeong@sk.com  
연구위원. 손지우 / 3773-8827, jwshon@sk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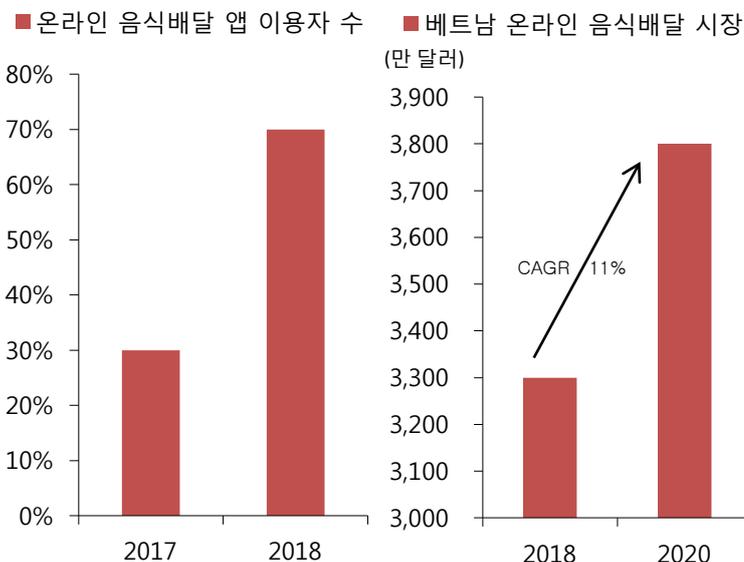
## 배달의 민족은 '한국'만이 아니다. '베트남' 시장의 성장성

관련 뉴스 요약 "배달의민족, 다음달 베트남 진출...'배민' 앱 서비스 개시"

-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 다음달 베트남에서 배달 앱 서비스 개시
- 다음달 초 베트남에서 배달 앱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베타서비스 테스트 진행중
-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월 2011년 설립된 베트남 현지 주요 배달업체인 베트남엠엠을 인수 한 바 있음

### Implication

#### 베트남 음식 배달앱 시장 성장성



자료: 언론종합

# 푸드테크 # 음식배달서비스 # 베트남

- 글로벌 스타트업이 베트남 진출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높은 경제성장률, 인구 수(9,7mn), '젊은 국가' (35세 미만이 60%), 정부의 적극적 외자유치 등 다양한데요. 아직 분야별 Key Player가 형성되지 않은 국가라는 점도 매력요인입니다
- 베트남 내 '음식배달' 서비스의 성장성이 예견되면서(20F \$38mn (YoY+15%))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진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. 국내 배달앱 중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최초 진출사례가 되겠네요
- 국내 배달서비스 경쟁의 심화 속, 배민은 '해외시장, 배달로봇' 등 이익 방어를 위해 추가 영역 확장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. MS 뺀어먹기 식의 단기 출혈 경쟁을 지속중인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판단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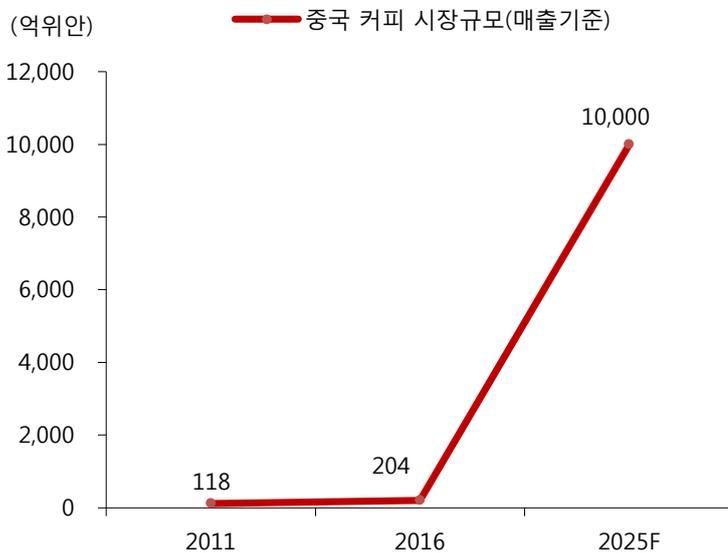
# 루이싱이 스타벅스를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더 맛있는 커피가 아니다.

## 관련 뉴스 요약 “스타벅스 대항마 中루이싱커피 나스닥시장 데뷔”

- 세계 최대 커피체인 스타벅스에 도전장을 내민 중국 토종 커피체인 루이싱 커피가 17일 나스닥 시장 데뷔
- 루이싱 커피는 17년 7월 사업을 시작한지 1년여 만에 중국 내 28개 도시에 2,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
-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건전하지 못한 재무구조는 해결해야 할 문제임

## Implication

### 중국 내 커피 시장 규모



자료: ICO

# 배달서비스 # 중국 커피시장 # 데이터

- 중국 토종 커피전문점인 LUCKIN Coffee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. 창업 2년만에 중국 내 28개 도시에 2,370개 직영매장을 운영 중인데, 22년 말까지 6,000개 매장 개설 목표를 공개하며 경쟁사인 스타벅스를 위협하는 모습입니다
- 중국 내 커피시장은 매년 소비량이 15%씩 성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(20년F 494조). 중국의 연간 인당 평균 소비 커피 잔 수(5잔)를 글로벌(50잔) 대비 비교해보면 추가성장은 당연해 보이네요
- 루이싱커피를 단순 커피전문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. 실제로 매장위치, 더 맛있는 커피에 집중하기 보다, 모바일서비스, 배송, 데이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인데요. 스타벅스를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원두보다, 더 많은 고객 데이터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아 보이네요

-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